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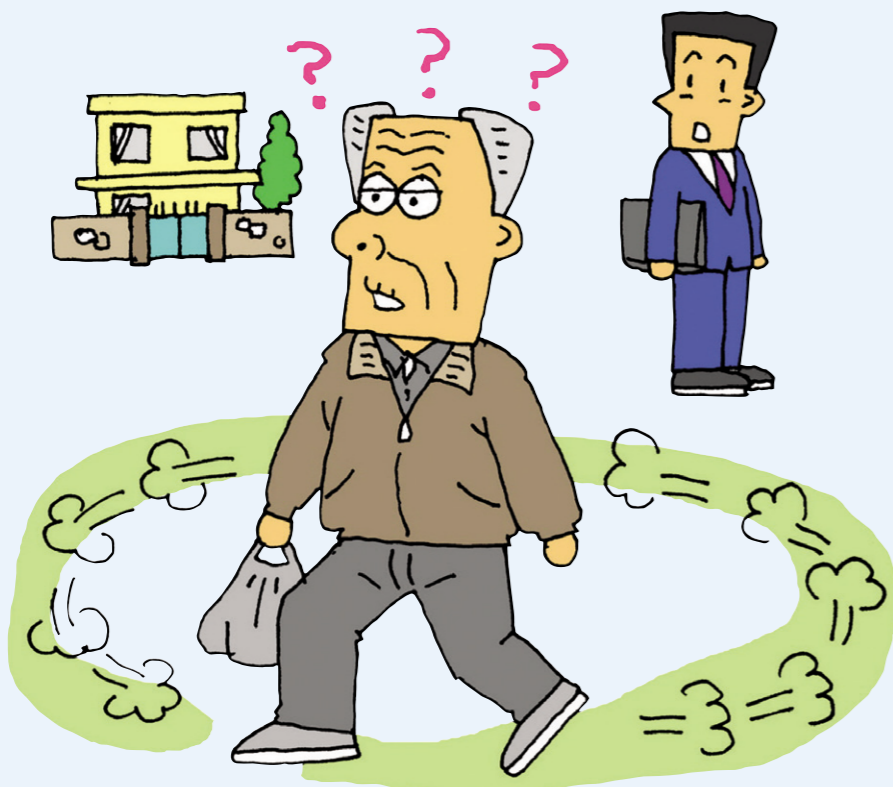
# 치매

##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.

치매는 노화에 의한 알츠하이머병과 뇌졸중 등에 의한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나 그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
- 알츠하이머병은 약물복용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의 진행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
- 우리나라에 많은 혈관성치매는 뇌졸중의 원인 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.

## 다음과 같은 증상들은 신경과전문의의 진료를 필요로 합니다.



- 옛날 일은 잘 기억하는데 최근 일들은 기억하기 어렵다.
- 어떤 일을 해놓고 잊어버려 다시 반복한다.
-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려 반복해서 물어본다.
-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.
- 계산능력이 예전만 못하다.
-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.
- 예전에 비해 집이나 방의 정리정돈을 못한다.
- 평소 잘 다루던 기구(세탁기, 밥솥 등)의 사용이 서툴어진다.
- 평소와 다른 성격 및 감정의 변화 :  
화를 잘 낸다거나 남을 의심한다. 전과 다르게 무관심하고 우울해진다.

“ 신경과 의사는 치매의 조기 진단을 통해 치매 환자들의 사회 복귀와 일상생활의 유지를 돕고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”



대한신경과학회

전화:(02)737-6530, 팩스:(02)737-6531

<http://www.neuro.or.kr>



대한치매학회

<http://www.thedementia.co.kr>